18대 총선을 7일 남겨둔 2일, 후보들은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박주선 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는 이날 대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부탁했고〈왼쪽〉,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후보는 충장로를 찾은 유권자들과 눈을 맞추며 한 표를 당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동구 "초일류 교육도시" vs "대규모 일자리 창출"

4·9 총선 표밭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는 2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동명동을 비롯 동구지역 상가와 아파트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오후 5시부터는 도청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표밭갈이에 분주.

박 후보는 이날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구를 경쟁력 있는 선진교육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동구 교육특구 지정, 학원타운 활성화 등을 통해 초일류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후보도 이날 남광주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조선대 후문에서는 학생들을 만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등 정책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모습.

김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TV토론'에서는 알찬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메신저로서 충분한 역량을 과시,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

정영식·박지원·이상열 후보 거리 유세

○…정영식 통합민주당 목포 후보는 2일 재래시장을 찾아 "목포의 자존심을 세울 후보는 민주당이 후보로 선택한 정영식 뿐"이라며 상인들에 한 표를 호소. 정 후보는 또 시장을 찾은 유권자들에게 "공천심사위가 선택한 민주당 후보는 정영식이며 목포의 자존심을 살릴 후보도 또한 정영식"이라고 강조.

박지원 후보(무소속)는 이날 하당 비파아파트 단지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목포에 미래가 없다"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신도심의 젊은 학부모 층을 공략.

한편, 최정선 전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목포지역 전직 시의원 24명은 이날 박지원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평화 민주세력의 정통성은 박 후보에게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군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당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

이상열 후보(무소속)는 이날 산정농공단지 내 기업체를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신안비치팔레스 4거리에서 거리유세를 진행.

이 후보는 연설에서 "호남 정치 1번지인 목포가 서남권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맞는 큰 인물을 키워 달라"며 한 표를 호소.

무안·신안 후보들 TV 합동토론회

○…무안·신안에선 황호순 민주당 후보가 삼향면 자혜양로원과 청계 에덴원 등 불우시설을 방문, 표밭을 다졌으며 김홍업 후보(무소속)는 신안군청을 비롯한 신안지역 관공서를 돌며 유세에 열중하는 모습. 3파전의 또다른 상대인 무소속 이윤석 후보는 몽탄역 유세를 시작으로 무안군 몽탄면 마을을 순회하며 지지를 당부.

한편, 이들 세 후보는 이날 낮 12시40분부터 진행된 TV합동토론회에 참석,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책비전과 공약을 제시.

민주노동당 후보 '진보 공약' 표밭갈이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2일 연합전선을 형성해 서민층을 겨냥한 진보적인 공약을 내놓는 등 표밭갈이에 매진.

민주노동당 후보 5명은 이날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을 가계 월 평균소득의 절반인 15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

민노당 조삼수(광산구 갑), 장연주(광산구 을), 오병윤(서구 을), 이봉훈(북구 갑), 김현정(북구 을)후보는 이날 조선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이 매년 올라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문화예술인 274명 강운태 후보 지지 선언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274명은 2일 강운태 광주 남구(무소속) 후보가 '광주와 남구의 문화예술행정을 이해하고 이끌어 갈 국가지도자로서 최적의 대안'이라며 지지를 선언.

강봉규 전 예총회장 등 이들 문화예술인들은 이날 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강 후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모체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화수도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라며 "문화수도 광주의 성공을 가져다 줄 최적임자임을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

지병문 통합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후 월산동 월산교회 앞에서 거리 유세를 통해 "월산지구 재발 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

평화통일가정당, 후보 인지도 끌어올리기

○…광주 전체 8개 선거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 가정당은 당과 후보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

광주 동구의 김공수 후보를 비롯한 8명의 후보들은 '가족행복 특별법 제정'과 '행복한 가정 337공약'(3자녀 이상, 3세대 이상 가정에 교육·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표심을 공략.

조창언 평화통일 가정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에서 민주당 바람이 거세고 당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후보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

탤런트 최선자씨, 김영진 지원 유세

○…탤런트 최선자씨는 2일 광주시 서구 풍암·금호동 지역을 돌며 김영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 지지를 호소해 눈길.

최씨는 이날 김 후보 부인 윤순남씨와 지역 상가 및 시장을 돌며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김 후보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선거 무관심층인 젊은층까지 관심을 나타내는 등 유명인사들의 출연이 유세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

/홍행기·윤영기·김지을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안=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 텃밭 사수 총력

'무소속 바람' 차단…군산·광주서 잇따라 전진대회

통합민주당은 4·9총선을 일주일 앞둔 2일 텃밭인 호남지역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심상치 않은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장상 상임고문, 안규백 조직위원장, 전북지역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 강봉균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박상천 대표를 중심으로 광주에서 선대위 전진대회와 지원 유세를 펼쳤다.

현재 민주당 자체분석으로 호남에서 무소속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총 31개 선거구 중 광주 남구, 광산갑, 목포, 무안·신안 등 9곳에 이른다.

정세균 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견제심리가 안정심리에 비해 두 배가 높으나 아직 견제심리가 민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견제론을 가진 국민은 민주당의 좋은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 박상천 공동선대위원장과 합류해 지병문 후보의 지역구인 남구의 광주공원 광장에서 광주시당 선대위 전진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박 대표와 장상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박주선(광주 동구), 조영택(서을), 김영진(서을), 강기정(북갑), 김재균(북을), 김동철(광산갑), 이용섭(광산을) 후보 등 광주지역 후보가 총출동해 무소속 강운태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는 지병문 후보를 응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공천에서 탈락한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불출마 선언을 한 염동연 의원 등 5명을 광주시 공동선대위원장에, 손재홍 광주시의원을 선대위 사무처장에 각각 임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전진대회에서 "민주개혁세력을 대표하는 민주당이 대선 때 추운 겨울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 재기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 1당 독재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제 한 뒤 "행정부와 지방정권에 이어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접수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견제와 균형이 상실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민주당은 2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에서 박상천 대표, 장상 전 대표와 광주지역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겸 전진대회를 갖고 여당에 맞설 견제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양 덕양갑 '反한나라' 후보 단일화 할듯

4·9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 덕양갑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한평석 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간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1일 오후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 양측에서 인정하는 1개 이상의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총선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한 후보측은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당의 후보끼리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측은 한 후보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후보측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선거를 5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을 매개로 반(反) 한나라당 세력간에 이뤄지는 첫 단일화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